



이긴자 일대기

10월: 두 이긴자를 증거하는 영모님

- 1) 해와 이긴자와 밀실
- 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 사반 사천의 의인
- 3) 제3신앙촌의 비화(秘話)
- 4)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전도함
- 5) 밀실에 입문하다
-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 8) 죄의 정체,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 9)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나이다

5) 밀실에 입문하다

(지난호에 이어서)

이 사람이 존경하는 전도사를 데려다 키워 보세요

한번은 '나는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절령당할 수 없는 괴수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와 이긴자에게 "이 사람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 사람이 존경하는 신앙의 동지인 최수영 전도사를 데려다 키워 보세요." 하고 제의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해와 이긴자는 감리교 목사를 데려다 키워 보시고 또 장로교 총신대학 학생을 데려다 키우시면서 그 애인까지 불러서 옆에 두고 키워 보시기도 하고 유장로 등, 그 외 여러 사람을 일곱째 천사가 보는 앞에서 키워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든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 지나다가는 하나같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해와 이긴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주면서 계속 열심히 하라는 느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는 자꾸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대로 6개월간 졸라서 드디어 "최수영 전도사를 전도해봐."라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전화로 연락하여, 부친 소사등기소 근처 어떤 창고 앞에서 플라벨을 박스 채 사다 놓고 마셔가면서 하루종일 전도를 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최전도사를 밀실로 데려가려고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영모님께서 키우신 틀림없는 해와 이긴자야. 하나님의 뜻이 밀실에 있어" 하는 등 여러모로 설득하려 하였으나, 최전도사는 "아니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66회)

예수를 업고 역사하시는 박태선 장로님

아! 그 사람은 천사마귀야! 영모님께서 분명히 천사마귀라고 하셨어! 어쩌다가 조형이 그 마귀 꼬임에 빠져 산속에서 고생을 하느냐? 참으로 안타깝다. 속히 나와라!" 하며 도리어 일곱째 천사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서 실랑이를 벌이기를 하루종일하다가 도저히 되지 않아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와 해와 이긴자를 뵈오니, 해와 이긴자께서 아시고 "그것 봐, 안 되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곱째 천사는 '네가 열심히 해라! 너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암시를 강하게 느끼고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밀실에서 자유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조화성에 관련된 가족, 자식, 친척이라든지 하는 모든 것을 일체 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곱째 천사는 자신과 관련된 것을 육적으로만 끊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심의 음란 때문에 넘어지던 것도 이제 넘어지려 넘어질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율법을 지키게 된 이후로 과거를 생각하는 뒤돌아보는 음란 때문에 걸려 떨어진 적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는 음란을 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그림자와 같은 음란죄에 걸린 것은 아니고 생각으로도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려고 마음자리를 잡았던 것이 바로 그림자 같은 음란죄인 것입니다.

이 그림자 음란죄에 걸려 천길만길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몇 달을 애걸복걸 하며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매달려서 나중에는 "이겼다!" 하는 말씀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겼다'는 말씀을 듣고 좋아하다가 그만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 떨어졌는데, 그때가 1979년 9월 하순경이었습니다. 이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후이마냥 다시 일어나서 기도생활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완전히 이겼던 것입니다.

'나는 이긴자이고 너는 죄인이다' 하는 생각이 스쳐가다

1979년 12월 하순경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온합창단의 연말 정기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모님을 비롯하여 영모님 사모님과 많은 전도관 교인들이 참석하였고, 해와 이긴자와 일곱째 천사는 영모님께서 앉으신 좌석에서 옆으로 몇 좌석 건너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영모님의 모습을 뵈오니 영모님의 모습이 몹시 초췌해 늙어 보이고 피로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해와 이긴자와 일곱째 천사는 '이 뭇나 인생을 키워 인류를 구원하려고 발잡을 못 이루시고 피를 토하시며, 죄를 담당하셔서 빼와 가족만 남아 초췌하게 되어버린 영모님을 뵈기가 몹시 죄송스럽고 하나님의 사정이 너무나 곤고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손수건이 흥건히 젖도록 눈물을 펄펄 흘리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사정에 눈물이 자꾸 흘러 손수건을 짜서 눈물을 닦고 또 짜서 닦고 하다 보니, 두세 시간이나 되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자 밑바닥을 보니 눈물로 흥건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모님께서도 가끔씩 당신이 키우는 두 이긴 자에게 눈길을 주시며 눈물을 감추시는 것이었습니다. 1979년도 당시 영모님께서도 소사 밀실에서 무력무력 자라나는 마지막 아담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계시는 부산 기장 쪽으로 온 세상 마귀를 유인하는 전략을 펼치셨는데, 그 전략이란 피의 원리로 가져다 구세주를 쳐버리는 전대미문의 일격이었습니다.

시온합창단의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갈 때, 일곱째 천사는 이터널 전도사를 만나 반갑게 악수를 했는데 순간 '나는 이긴자이고 너는 죄인이다' 하는 생각이 스쳐가는 것이었습니다. 해와 이긴자께서는 밀실에 들어 오자마자 "조사장, 이 새끼, 자존심 교만 마귀가 들러가지고 비교하는 음란죄에 걸려 떨어졌다."라고 호통을 치며 팔팔 휘시며 웃음을 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목을 놓고 울게 되니 밀실 시구들 모두 대성통곡을 하며 울어서 밀실이 초상집같이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박태선 장로의 모습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통곡하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The Passion Of The Christ, 2004),에서

부득불 예수를 업고 역사하게 된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 속에서 구세주를 찾아 키우기가 용이했기 때문

한편 전국적으로 150만 교인들을 이끌 어온 영모님께서 전도관 30년 역사를 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자, 1979년도 초부터 피의 원리를 깨내 들고 사망권세를 쥐고 있는 대마왕(大魔王)에게 일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동정녀가 되시는 영모님께서 임마누엘, 즉 일곱째 천사를 낳아서 기른 끝에, 이 일곱째 천사가 삼십 대에 이미 물 한 모금 먹지 않은 채 30일씩 금식기도를 열네 번을 하고 그다음 사십 대 후반에 밀실 연단에서 대마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선 것으로 보았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섯째 천사 영모님이 예수를 업고 역사하게 된 데에는 많은 기독교인을 끌어모아 그 속에서 구세주를 찾아 키우기가 용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관의 초창기 1950년대부터 영모님은 예수에 대해서 지극정성을 다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진수(眞髓)는 '십자가, 보혈, 부활'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보배로운 피를 흘리지 못했을 것이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지 못했으면 우리 인류의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도 못하고 다 지옥가야만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토해내시면서 영영 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단과 교회를 초월해서 집회 참석할 수많은 교인들 대부분이 단상에 설교하는 박태선 장로의 모습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통곡바다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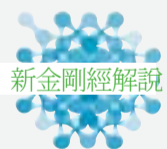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 피의 찬송만 골라서 부르셨는데, 예컨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라든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66권 중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다 껌데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니,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물물 뜻이 물려들었고 박 장로를 이단이라고 결의한 목사들도 어쩌다 한번 영모님의 이와 같은 설교를 듣고는 감동되어 "기독교 역사 이래 예수님을 이와 같이 감동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면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영모님은 예수의 충실한 종이 틀림없는 것같이 보였습니다.

영모님의 충격적인 증대 발표

동방의인이자 감람나무 곧 승리자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영모님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충실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영모님이 축복한 생수가 종종 피로 변한 적이 있는데 이를 예수님이 흘린 피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귀가 들린 미친 병자에게 생수를 먹이면 "피! 피!" 하면서 진저리를 치는데 이도 예수의 흘린 피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영모님은 피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피는 곧 생명이다(창9:4)"라고 하시어 예수님이 흘린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인 피를 다 쏟아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979년에 이르자 영모님의 설교말씀은 지금까지 예수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전도관 교인들의 입장에서 신 뜻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영모님은 다음 축복일에는 중대한 말씀을 발표한다고 전국에 공문을 띄우라고 하시기에, 엄청난 수의 교인들이 협회에 보낸 공문을 보고 그 예정된 축복일에 가장 신앙촌으로 물려들었던 것입니다. 잔뜩 긴장하면서 기대를 갖고 가장신앙촌에 모인 신도들은 매우 실망하고 돌아간 기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영모님은 중대한 말씀을 꺼내지도 않았던 채 평범한 말씀만 하시고 끝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를 몇 번의 축복일이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발표에 대한 기대와 긴장이 풀어진 다음에 맞은 축복일에 영모님은 느닷없이 성경 66권에 있는 유명한 인물들을 창세기서부터 차례로 한 명씩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설명하면서 쳐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한 명도 남김없이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등도 다 때려버리고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으로 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모님의 충격적인 발표에 교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단지 마음속으로만 '아무리 영모님이 큰 종이라고 하지만 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쳐버리시고 어쩌려고 하시는 것일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야'하고 되뇌기만 했습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이색이상분(離色離相分) 第二十

(지난호에 이어서)

[해석] 이 뜻도 또한 위와 같은 뜻이나 여기서도 부처의 상징인 32상을 갖추지 못했지만 석존이 방편으로써 갖추었다고 말했으므로 진실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처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러나는 법신부처님의 참 모습인 감로의 빛이 항상 함께하여야 하는데 감로의 빛이 없으므로 부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함경에서 석존께서는 부처의 상징인 32상 중에 27가지의 모습, 즉 광장설(廣長舌)과 음마장(陰馬藏)이 안 보인다는 시라범지의 의문에 "넓고 긴 혀(廣長舌)를 입에서 내어 양쪽 귀를 훑고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기록하여 시라범지를 믿게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최후의 대승경전인 열반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아닌 부처\_2

■ 대반열반경 23권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

爾時 如來 世尊 告 光明 遍照 高 貴 德 王 菩 薩 摩 訶 薩 言 善 男 子 若 言 如 來 得 廣 長 舌 善 男 子 若 言 如 來 得 廣 長 舌 當 知 如 來 於 無 量 劫 中 已 離 變 妄 語 當 知 如 來 於 無 量 劫 中 已 離 變 妄 語

그때 세존께서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시길, 선남자여! 만약에 여래가 넓고 긴 혀를 가졌다면 잘 알지니 여래는 한량없는 겁 가운데 허망한 말씀을 없었느니라.

[해석] 여기서 말하는 여래는 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법신불인 미륵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석존은 자기의 제자인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마하



甘露法乳(감로법유): "만일 감로를 먹게 되면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나고, 혹 재차 감로를 먹으면 수명이 길어져 장수하리라.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 『대반열반경 8권 여래성품 4-5』

살에게 왜 자꾸 열반에 대해서 말씀과 뜻이 다르냐고 힐난을 받는 가운데 석존이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석존이 말씀한 광장설(廣長舌)은 넓고 긴 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중생들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서 말씀을 많이 하시며, 미륵부처님의 교법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잘한다

고 하는 의미이며, 말씀을 함에 있어 막힘이 없는 큰 지혜로써 모든 법에 대해 논하시므로 광장설(廣長舌; 넓고 긴 혀)의 바른 의미는 장광설(長廣舌; 웅변)을 의미하는 것과 뜻이 같으므로 이 또한 부처의 32상과는 그 뜻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경원에서 펴낸 부처의 상징인 32상에 대한 내용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석존이 지금 여기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처의 상징인 32상에 의한 부처님의 모습도 실제의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므로 당연히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설소설분(非說所說分) 第二十一

말씀했다 하나 말씀한 것이 아니다. (1)

중생들을 위하여 불법을 말씀했다고 하지만 무상대도의 법을 말씀하지 못함은 스스로 백지불교의 성문 연각이었기 때문이다. 성문과 연각은 그 깨달음 이상의 참된 이치를 알 수가 없으므로 반쪽 글자만 말씀했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전한 불법을 말씀하지 못했으므로 불법의 근본을 말씀한 것이 아닌 것이다.

須菩提 수보리

汝勿謂如來作是念 我當有所說法 眞實是念 曷作是念 何以故 若人言如來有所說法 卽爲誑佛 不能解我所說故 勿能解我所說 不能解我所說 不能解我所說

수보리아, 너는 여래(석존)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법을 말씀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르되, 여래(석존)가 (부처님)법을 말씀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곧 부처님(법신불)을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석존) 말씀한바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석] 이 말씀의 뜻은 석존은 49년간 대중을 위해 8만4천의 법문을 말씀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참된 이치는 말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열반경에서도 뜻을 분명하게 모르는 반쪽 글자를 말씀했다고 했고 법화경에서도 중생들을 위해 세상의 법을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면 석존이 말씀하신 뜻을 아는 요의경(了義經)이 있고, 석존의 말씀한 뜻을 모르는 불요의경(不了義經)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석존의 진실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말세(末世)에 나쁜 길에 떨어지지 말고 귀의처(歸依處)를 찾게 쉽게 하기 위해서 경전에는 귀의하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말씀이 쓰여 있답니다. 참고 경전을 한 번 보실까요? \* 明確